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깜깜하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깜깜하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깜깜하다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깜깜하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아주 까맣게 어둡다.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깜깜하다	-	-	-
깜깜하다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아주 까맣게 어둡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6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깜깜하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아주 까맣게 어둡다.

☞ 깜깜하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깜깜하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쌔쌔ㅎ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깜깜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쌔쌔ㅎ- 문헌 수록 표기	—	—	—	—	●→	●→
강깜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깜깜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쌔쌔ㅎ다

19세기20세기

- 감감하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쌈쌈하-, 갹감하-, 쌈쌈하-, 감감하-

↳ 감감하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감감하다’는 19세기에 ‘쌈쌈하다’와 ‘갹감하다’로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쌈쌈하-’는 현대어 ‘감감’으로 이어지는 ‘쌈쌈’에 현대어 ‘-하-’로 이어지는 ‘-하-’가 결합한 것이다. 근대 국어 후기에 ‘ㅅ’을 ‘ㄱ’으로 적게 되는 경향에 따라 나타난 것이 ‘갹감하-’의 ‘갹감’이다.

ㄴ 표기와 소리의 특징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ㅅ’이 ‘ㄱ’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하-’가 ‘-하-’로 바뀌어 ‘갹감하-’로 나타난 것이다. ‘갹감하-’를 고려하면 19세기에 ‘감감하-’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감감하-’는 20세기에 나타난다. ‘감감하-’의 제1음절의 종성 ‘ㄹ’이 후행하는 ‘ㄱ’에 동화되어 나타난 것이 ‘갹감’이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20세기까지 ‘쌈쌈하-’, ‘감감하-’, ‘갹감하-’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감감하다’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감감하다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쌔쌔흐-, 갠쌔하-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쌔쌔흐-, 갠쌔하-

출처 1896년 국한회어 15

용례 01

66 문헌 용례

쌔쌔흐다 [黑暗].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6년 국한회어 15

용례 02

66 문헌 용례

갠쌔하다 [黑暗].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쌔쌔흐-, 갠쌔하-, 갠쌔하-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쌔쌔흐-, 갠쌔하-, 갠쌔하-

출처 1911 목단화 157

용례 03

66 문헌 용례

쌔쌔흐야 보이는 것이 업느니라.

현대어 풀이

갠쌔하여 보이는 것이 없는지라.

출처 1936 조선일보 2월 4일 5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웬걸 드러다볼수록 갠쌔해지는 것이 세상 리치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조선일보 1월 7일 석간 2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그의 방랑의 길이고 보니 어느 때는 돌 우에서 캄캄한 하늘의 별을 쳐다 보며 젖때를 불었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40 삼천리 제12권 제5호 319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달도 없고 캄캄한데 등대불만 깜박깜박 했었어.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깜깜하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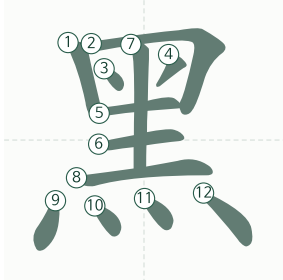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깜깜하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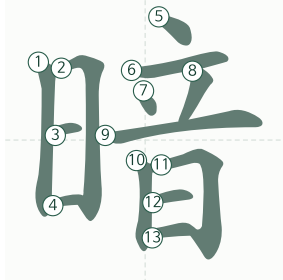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黑 뜻·음 검을 흑
총 12획 · 부수 黑



hanja.wordrow.kr/한자/黑/

暗 뜻·음 어두울 암
총 13획 · 부수 日



hanja.wordrow.kr/한자/暗/